

#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투기 막는다

## 도, 22개 시·군 권역별 총 203개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전남도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전남도는 22일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령이 지난 1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시·군 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22개 시·군이 읍·면별이나 권역 별로 총 203개의 농지위원회를 구성토록 행정지도 했다.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보성군, 무안군은 조례에 근거해 권역별로 구성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결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 후 1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는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수로, 농막, 축사 등 개량·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순철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제도 개선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등 농지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된 농지제도를 적극 홍보해 도민이 농지 이용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농지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작성 대상은 1천㎡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됐다. /김재정기자

# 광주 소아전담 병상 22개 확충

## 지역응급의료협의회 회의...응급환자 핫라인 구축

광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응급의료협의회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전담병상 22개를 확충키로 했다.

광주시는 22일 "최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5개 자치구 보건소, 6개 병원 응급의료센터, 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환자 수용성 제고, 응급이송체계 효율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일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 2·3차 의료기관 응급실 전원 필요시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수용 가능한 2·3차 의료기관 확인 후 이송토록 하는 의료기관 간 전원체계 구축 ▲위중증환자 이송시 119·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 간 핫라인 운영 ▲코로나19 환자 적극 수용 치료(중앙정부 건의·시범 운영 후 확대) ▲전남대병원에 소아전담 중증병상 2개, 기독병원에 소아전담 중증병상 20개 등 코로나19 소아 전담 병상 지정을 통해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박성강기자

## ▶1면 '농협·수협중앙회'서 계속

김승남 의원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농어업인의 상당수가 거주하는 비수도권 지역이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수협중앙회 주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시에 두도록 막은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일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과 농어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도 과거 중앙회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2015년 서울시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농협·수협중앙회 주 사무소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시청 총무시설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회'를 마친 강기정 광주시장이 안보체험 전시관에서 군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제공>

# 도-의사회, 코로나 의료대책 협력 강화

## 지역감염 확산 차단·적정 의료서비스 협력 등 협약

전남도는 22일 전남도의사회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차단 및 확진자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최윤창 전남도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코로나19 병상·치료제 등 도내 가용자원 감당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환자 관리가 이뤄지도록 확진자의 급격한 발생을 방지하고 ▲코로나19 확진 또는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단·처방·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이환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금주 부지사는 코로나19 대

응 과정에 전남도의사회가 협조하고 헌신한 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코로나19 의료 대응이 민간병원 주도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 전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행정과 의료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의료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윤창 회장은 "전남 의료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했다"며 "더 촘촘한 의료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사회는 2천8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남을 대표하는 의료단체다. 열악한 전남의 의료 환경에서도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 “코로나 재유행 이번 주 정점 후 감소세로 전환”

## 정기적 감염병자문위원회 “10-11월 ‘큰 파도’” 광주·전남 어제 오후 5시 기준 또 1만명 육박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정기적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2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10-11월 대규모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만9천46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 15일(6만2천56명)보다 3천10명 줄었다. 전남 신규 확진자 수(1만944명)도 1주 전(14일·1

만9천546명) 대비 감소해 이를 연속 감소세로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역상황을 지켜보며 정부에 자문과 권고를 아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다"며 가을에서 초겨울께 대규모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10-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적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지나가면서 약 1천800만명이 코로나19에 걸렸으면서 "그때 앞선 분들의 면적이 6개월 정도면 대개 마무리가 된다"며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 사이에 우리 국민의 평균 면적 수준은 가장 낮게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저도 8월 초에 맞은 4차 백신의 효과 12월 정도까지 밖에 가지 않을 것이고, 그 전에 맞은 사람은 (효과 유지 기간이) 더 짧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세포면적 수준을 알 수 없고, 집계된 확진자 수

보다 30%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감염돼 항체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변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도 한 번쯤은 큰 파도는 올 것"이라며 "전에 보던 의료체계 강화, 현장 상황을 반영한 응급시스템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4천150명, 전남 4천813명 등 총 8천963명으로 집계됐다. 휴일이었던 전남엔 병·의원 RAT 검사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총 5천294명(광주 2천611명, 전남 2천6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성강기자·연합뉴스

# 내달 20일까지 도민감사관 150명 모집

전남도는 22일 "도민 생활 불편사항과 공무원 비위 등을 감시할 일명 '도민 감시관'인 도민 감시관을 오는 9월 20일까지 한 달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개 모집은 2020년 10월부터 활동 중인 제9기 도민 감시관 141명의 임기가 9월 말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활동할 제10기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신청 도민에 대해 적격 여부를 판단, 시·군별 인구 수에 비례해 150명 안팎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도민 2년간 활동한다.

신청 대상자는 ▲각종 민관·사회단체 등에서 적극 활동한 도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으로 재직할 도민 ▲감사에 식건이 풍부한 도민이다.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도, 시·군 감사부서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민 감시관으로 위촉되면 도민 생활 불편사항과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지역 현안사업 등의 추진 상황 점검과 개선 의견 제시, 도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의 활동을 한다.

김세국 감사관은 "그동안 도민 감사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많이 해소됐다"며 "청렴전남 실현을 위해 많은 도민이 신청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생활시령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팩스용지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복사용지 • 각종인크류
- 카트리지가 • 판매 • 임대 • A/S

T.062)375-5880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2-209호]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 이사 : 1명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회계사, 전직 4급이상 공무원, 경영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교수 등 공사 업무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체육시설 관리 등 관련 업무 경력을 갖춘 분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춘 분
- 주요 직무내용**  
○ 비상임 이사의 주요직무  
가. 공사 경영에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수행  
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주요 경영정책 심의·의결
- 직무수행 요건**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직무수행요건 '붙임' 참조
- 임기 및 보수**  
○ 임기 : 임용일로부터 3년  
-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소정의 업무수행활동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
-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  
가. 서류심사 :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 전형 기준  
① 공사 사업관련 전문성, ② 전략적 사고 및 비전 제시능력, ③ 공사 업무관련 이력 및 경력, ④ 공공성·기업성 조화 능력  
- 공사 홈페이지에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 비상임 이사는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갈음  
나. 서류심사에 합격한 비상임이사 임용 후보자를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복수 추천
-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 지원서 접수 : 2022. 8. 25.(목) ~ 2022. 9. 2.(금) 09:00 ~ 18:00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가.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소정양식)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계약 동의서 1부 (소정양식)  
5) 기본증명서 (상세)  
6) 경력증명서 (근무처별)  
7) 보유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5년분)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 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총무팀 (15층)  
- 주 소 : (61964)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알  
○ 서류심사 : 2022. 9. 5.(월) 예정·심사결과와 공사 홈페이지 공고  
○ 임용후보자 복수 추천 : 2022. 9. 6.(화) 예정  
○ 최종임용 : 임용권자가 최종 임용 / 9월중(예정)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제출서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한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2명)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의 방법으로 재모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총무팀(062-600-66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관련 서식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 할 합 병 공 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대전전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동원전기(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2년 08월 16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08월 23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대전전력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관천로 62(역북동)  
대표이사 : 임 상 민

"을" 상 호 : 주식회사 동원전기  
소 재 지 : 전남남도 무안군 삼합읍 임성로 144-27, 1호  
사내이사 : 이 은 경

합병공고 제2022-882호

## 합병공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공고

합병공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3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합 병 공 고 수

- 목적**  
○ 합병공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 개요**  
○ 용역명 : 합병공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  
○ 용역내용 :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요소를 파악하여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주요내용**  
○ 합병공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발표, 관계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 기타**  
○ 주민은 공청회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병공고 안전건설과(061-320-1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